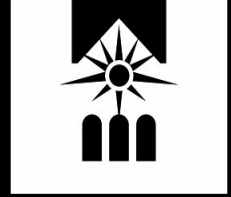




EPIPHANY

CATHOLIC CHURCH

In your neighborhood. In your life.



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Korean)

10:30 am

12:00 pm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Monday - Friday

8:00 - 8:30 am

Saturday

4:00 - 4:30 pm

Eucharistic Adoration

Wednesday

5:30 - 6:30 pm

TWEN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23, 2020

Monsignor Godfrey Mosley

Pastor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Marriage

Please call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Marriage preparation and instruction are required.

Sick Calls

Please call if any parishioners are in need of the Sacrament of the Sick.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for Adults (RCIA)

For those who would like to join the Catholic Church,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dult Confirmation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may register online, or use the registration forms in the vestibule.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arish Office is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Twen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He shall be a father to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Isaiah 22:21)

Master of the palace: it was a sought-after title, and Shebna knew it. That title gave him far-reaching authority over the king's household and possessions. But he abused that power by taking advantage of perks like the royal chariots and even making a beautiful carved tomb for himself (Isaiah 22:16, 18). That's why God unseated Shebna and established Eliakim in his place. He wanted someone who would exercise that authority with fatherly concern and compassion, not self-promotion, domination, or greed. In other words, the master of the palace should imitate the way God uses his authority: to serve his people.

These words point to something important about God's desires for his kingdom. He wants a kingdom where leaders don't lord their authority over the people in their care. He wants them to show compassion and concern for their people (Matthew 20:25-26).

Jesus gave that type of authority to Peter. Yes, Peter received the "keys to the kingdom" and the power to bind and to loose (Matthew 16:19). But first and foremost, he was to be the rock, the solid foundation upon which the Church would be built. He would not be raised up above all his brothers and sisters; he would be beneath them to support them.

That's the type of leadership God wants parents or anyone in authority to exercise. Godly leaders don't put themselves first. They are not greedy for honor or power. His kingdom is a place where, instead of setting themselves up against one another, his people serve one another with love, respect, and honor.

Shebna's story is a lesson to us, especially those times when we are tempted to take advantage of our position. Peter is a role model too when we are tempted to think leadership equates to tyranny. Let's take their examples and learn how to be good leaders in our families, our workplaces, and our Church.

"Lord, help me to place serving above being served today."

Psalm 138:1-3, 6, 8

Romans 11:33-36

Matthew 16:13-20

The WORD Among Us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AUGUST:**

The Maritime World

We pray for all those who work and live from the sea, among them sailors, fishermen, and their fami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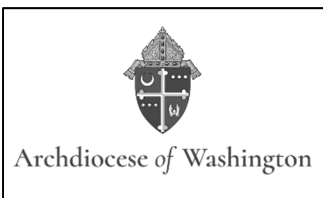
FOR YOUR SAFETY



Please be extremely careful on the uneven brick sidewalk in front of the rectory. Epiphany Catholic Church's

service request #19-00110224 for repair is slated for completion at a date still to be determin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isit 311.dc.gov or call 311 with questions or for additional information.

**ARCHDIOCESE OF WASHINGTON
WEBSITE RESOURCES**



The Archdiocesan website,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is updated regularly with information for the faithful. Go to adw.org/coronavirus/ to find the latest resources,

including a link to find a listing of live stream Masses and prayers.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 | |
|--|--|
| Saturday, August 22 Vigil | 5:00 p.m. Soo Jeong An |
| Sunday, August 23 TWEN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 7:30 a.m. Soo Jeong An 10:30 a.m. Special Intention |
| Monday, August 24 ST. BARTHOLOMEW | 7:30 a.m. Soo Jeong An |
| Tuesday, August 25 St. Louis St. Joseph Calasanz | 7:30 a.m. † Gina Celowski |
| Wednesday, August 26 | 7:30 a.m. † Joseph Caponio |
| Thursday, August 27 St. Monica | 7:30 a.m. † Loretta Rossi |
| Friday, August 28 St. Augustine | 7:30 a.m. † Carlos Pacheo |

8월 23일 연중 제21주일 미사 전례

입당송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이사야서 22,19-23

화답송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2독서 로마서 11,33-3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복음 마태오 16,13-20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 본당 미사 재개 안내 주일 아침 9시 한국어 미사는 9월 6일에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미사가 예정된 시기에 재개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미사 차례 지침은 본당 웹사이트(georgetownepiphany.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미사 안내 본당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가톨릭평화방송(cpbc.co.kr/TV/178)에서 동영상 미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평일, 주일 미사를 봉헌하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한영 매일 미사' 개인 구독 안내 미사가 중단되어 성당에서 '매일 미사'를 본당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은 북미주한인사목협의회로 연락하시면 개인으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및 발송 문의 핫라인 번호는 714-315-8862 (텍스트 및 디지털 메세지 전용) 3개월/6개월/12개월 구독 가능합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반 모집 2020-2021년 예비자 교리반에 참여할 예비신자/견진 예정자를 모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과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임이 재기될 때까지 온라인 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리신청은 koreanmadonna@hotmai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헌금 및 기부금 안내 에피파니 성당에 헌금 및 기부금은 본당 웹사이트(georgetownepiphany.org)에 있는 Online Giving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신자 신구약 성경읽기/구약 필사 한인 공동체 15주년(2020년) 기념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에 참여 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약 필사를 다 하신 분들은 한인 미사가 재개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읽기는 성경 읽기 진도에 늦어지더라도 매일 조금씩 읽어나가기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읽기 (2020년 8월 23일 ~ 8월 29일)

예레미야 46 - 52장 / 테살로니카 1서, 2서

[신령성체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교황님의 8월 지향]

보편 지향 : 삶의 터전인 바다

선원과 어부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바다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녀 로사] 축일 8월 23일

1 586년 4월 20일 페루 리마의 에스파냐 가문에서 태어나 이사벨 플로레스 데 올리바(Isabel Flores de Oliva)라는 이름으로 세례성사를 받은 성녀는 14살 때에 로사(Rosa)라는 이름으로 견진성사를 받았다.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던 그녀는 양친의 결혼 계획을 끝내 반대하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모델 성녀로 삼았던 시에나(Siena)의 성녀 카타리나(Catharina)를 본받기 위해 엄격한 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결국 성녀 로사는 도미니코회 제3회에 입회했다. 하지만 부모의 생계를 도와야 했기에 부모의 집 정원에 통나무집을 마련해 은수생활을 하며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여러 가지 신비로운 특은을 비롯해 환시를 보았는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나자 사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그녀를 심사하는 일까지 생겼다. 그들은 조사 끝에 성녀 로사 주변의 모든 일들이 초자연적인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성녀 로사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 그녀의 집 정원은 마치 영성 센터처럼 변했다. 건강이 나빠졌던 관계로 성녀 로사는 돈 곤잘로 데 마사와 그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3년 동안 리마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1617년 8월 예수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선종하였다. 그녀는 교황 클레멘스 10세(Clemens X)에 의하여 1671년 4월 12일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성인으로 시성되었고, 페루와 남아메리카, 서인도 제도, 필리핀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금주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주성희 로사 (축일 8월 23일)



톨로메우스 성당을 세워 그곳에 모셨다. 성인의 두개골 일부는 123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로 모셔져 그곳에 성 바르톨로메우스 대성당이 세워졌다. 그의 축일은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6월 2일에 지내고, 라틴 서방교회에서는 8월 24일에 지낸다. 그는 미장공과 세공인의 수호성인이며, 유럽에서는 14명의 '구급(救急) 성인'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신경통을 앓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8월 24일

사도 성 바르톨로메우스(Bartholomaeus, 또는 바르톨로메오)는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불림 받았다는 기록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공관복음(마태 10,3; 마르 3,18; 루카 6,14)과 사도행전(1,13)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름이 나오는 것 외에는 신약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히브리어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다. 그래서 바르톨로메우스는 톨마이(Tolmai) 또는 탈마이(Talmi)의 아들이란 뜻이다. 9세기경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갈릴래아 카나 출신의 나타나엘(Nathaniel)과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나타나엘은 사도 성 필립보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요한 1,47)는 칭찬을 들었다.

에우세비우스(Eusebius)의 "교회사"에 의하면 그는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히브리어로 마태오 복음을 저술했다고 한다. 다른 전승에 의하면 성령강림 후 사도들이 세상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 바르톨로메우스는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 신자들에게 마태오 복음 사본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소아시아 중남부의 리카오니아(Lycaonia)를 비롯해 카스피해(Caspian Sea) 남쪽, 오늘날의 이란 북부 지역까지 가서 선교했다는 전승도 있다.

성 바르톨로메우스 사도는 성 유다(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는 타대오) 사도와 함께 아르메니아(Armenia)에도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는데, 고대 아르메니아는 이미 4세기에 최초로 복음화가 된 나라였다. 2000년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 10월 22일)는 아르메니아 복음화 1700주년을 기념해 방문하기도 했고, 성 바르톨로메우스와 유다 사도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수호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 성 바르톨로메우스 사도는 그 지역 왕의 동생을 개종시켰다는 이유로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순교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전승이 있으나 산 채로 살갓을 벗기는 고통을 당한 후 참수형을 받고 순교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그의 상징은 칼과 벗겨진 살가죽이 되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면서, 심판관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살가죽을 두 팔로 봉헌하는 모습으로 성 바르톨로메우스 사도의 모습을 표현했다.

성 바르톨로메우스 사도의 유해는 507년경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Anastasius I)가 오늘날 시리아 동부에 위치한 고대도시 두라에우로포스(Dura-Europos)로 모셔왔다. 그 후 최종적으로 983년 오토 3세(Otto III) 황제에 의해 로마로 모셔왔고, 티베레 강에 있는 성(이졸라 티베리나)에 성 바르